

다산포럼

김민환



1950년대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은 덕수궁 연못에서 겨울에 스케이트를 지친 이야기를 한다. 60년대에 겨울에 덕수궁 연못을 개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60년대 후반에는 덕수궁에서 열린 국전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와 약자인 국전은 그 시절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미술 전람회였다. 스케이트를 지친 50년대 대학생은 썰매를 타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스케이트로 뽐을 냈겠지만, 60년대에는 국전 관람에 예쁜 여대생을 동반하는 것으로 뽐을 잡았다.

가두고 박제할 순 없어

60년대에 봄이 되면 창경원은 벚꽃놀이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금도 벚꽃놀이와 놀이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동물원이 있어 희귀한 여러 동물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곁들일 수 있었다. 우리 고궁에다 동물원을 짓고 뱃나무를 심은 일제의 물지각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다른 데로 옮긴 건 당연하다. 그러나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하게 해 그들을 궁으로 불러 모은 순종의 발상 자체는 범상의 차원을 넘은 것이다.

나는 지난 해 어느 날 우연히 경희궁에

간에 가뒀고 보존에만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박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역사를 가뒀는 일이다. 유적은 개방하되 관리를 잘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덕수궁에 다시 스케이트장을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보다 덕수궁 안이 백번 나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희궁이 아닌 경복궁 뜰에서도 마당극을 열게 해야 한다. 근접한 앞에서 옛 임금을 빔대 오늘의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교는 마당극이 펼쳐지는 건 상상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남대문이 불에 탔다. 이 일로 관청은 문화재청장이던 유홍준 교수가 임기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는 학교에 돌아와서도 한 동안 얼굴을 들 수 없었지 모른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 문을 개방했다 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그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는 두고두고 가려야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터졌다고 해서 대중이 유적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문화재는 대중 가까이 있어야

들렀다가 좋은 구경을 한 적이 있다. 태권도를 하는 분들이 경기시범을 보이면서 아울러 국악까지 들려주었는데 궁정에서 우리 고유의 운동이나 음악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곳에서는 주말이면 마당극도 열리고 때로는 수준급의 뮤지컬도 공연한다. 그 뜰에 모인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뒷날 고궁에서 본 뮤지컬을 기억할 것이다.

문화재나 유적 등은 대중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살아난다. 아무리 유적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을 사는 대중과 유리된다면, 필패된 공

해도 즐겁다. 물론 '왕의 남자'에게 줄타기를 하게 해도 좋을 것이다.

태조 때부터 보제루(普濟樓)에서 불에 가로연(耆老宴)을 열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 해마다 70세가 넘는 노인들을 불러 모아 국왕이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노인을 위한 연회는 물론 어린이잔치나 성인잔치도 옛 식을 살려 고궁에서 벌이고 그걸 개방한다면 의미도 있으리니와 관청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고궁을 관리하는데 맡겨놓으니까 그렇지 그럴 잘 활용한다면 아마 뜻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일을 벌여

개방하되 관리를 잘 해야

내가 남대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곳은 시드니였다. 여행 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불이 붙은 남대문의 화려한 단청과 불에 타고 남은 시커먼 잔해 사진을 대문짝만 하게 대비한 현지 신문을 보고, 나는 한국인임이 부끄러웠다. 유적이 불에 탔다고 해서 유적을 박제품으로 만든다면, 유적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조롱당할 것이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고배 풀린 생활물가 대책 서둘러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 올라 4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범위 상한선 3.5%를 상회했다. 특히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을 훨씬 초과한 3.9%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물가 상승은 생활물가가 주도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4.6% 올랐다. 하지만, 리먼가격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실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리먼가격 인상이나 3월 납입금 인상 등이 반영되는 3월 물가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생활물가의 급등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실제 지수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물가 상승이 국제 유가 및 곡물가, 원자재값 상승 등 통제 불가

한 대외변수가 주요 원인인 만큼 통제한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에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대목이다.

고물가는 고금리·고임금을 자극해 기업수의 둔화와 투자위축, 고용감축은 물론 산업경황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변수 때문이라는 하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유류세를 비롯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 등 각종 세금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물가상승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 호남 '개혁 공천' 약속 주시한다

통합민주당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 주변에서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 명단'이 나돌면서 흥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공천심사위가 호남지역 '공천 혁명'을 다짐한 마당에 결과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 때마다 대폭 물갈이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막상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기존에 미달하거나 실망시킨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라도 당내 실력자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 때마다 대폭 물갈이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막상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기존에 미달하거나 실망시킨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라도 당내 실력자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사정은 절박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천 혁명'이 형식에 그쳐서는 개혁성과 참신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깨끗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NGO 칼럼

한선희



며칠 전 친구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대화와 오가는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요즘 식당은 식사 후 아이들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식당도 그러하여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그곳으로 모두 풀려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섯 살 난 여자 아이가 시무룩해진 얼굴로 들어와 엄마 곁에 앉자 엄마가 손을 얹고 얼굴을 비비며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얘기한다.

"엄마 언니가 안 놀아줘" "언니가 안 놀아줬구나!" 엄마의 한마디에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의 한 손은 엄마 가슴을 만지면서 엄마

미국은 아동인구 1천명당 아동학대 보호율이 2004년 11.9명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는 0.35명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일부의 경우 1.6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0.42명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의 학대아동보호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2007)

최근 울산에서 일어났던 계모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도 이웃이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의해 목격되었던 잦은 문자국을 빨리 신고되어 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동기의 신체 학대나정서학대, 방

엄마의 품

를 꼭 껴안는다. 보통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이 광경에 나는 가슴 한쪽이 찡해지기를 느꼈다. 이런 때 아이들은 엄마의 품이 있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상응 사업을 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설치된 우리 기관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담전화 1577-1391을 통한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 '패스킵을 오르내리는 아동학대가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일어나는 일이나?' '우허려 요즘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만 324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37건이었다. 아동학대 특성상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가족문제'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 신고율이 낮은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급방 알 수 있다.

임, 성(性) 학대 등은 아동의 건강·발달·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애정이 결핍되면 자아개념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게 되고 학대받는 상황과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손상을 가져와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커서 직장동료관계나 결혼관계를 맺거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우리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학원교사 등 아동과 자주 접촉하며 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야말로 잃었던 엄마의 품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이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광주의 상징 '무등산' 진입로 만들어 접근성 높여야

무등산은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다. 광주시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데 무등산을 이용한다.

하지만 타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무등산이 멀다. 무등산을 가려면 최소한 2~3번은 길을 물어야 하는 등 해매기 일쑤다.

외지에서 무등산에 가려면 제2순환도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에서 시내를 가로질러 무등산으로 간다. 2순환도로에서 지나다보면 바로 옆에 무등산을 두고 시내를 헤매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등산을 처

음 찾은 방문객들에게 연료·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문화수도 광주의 도로체계 허술함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일 아닐 수 없다.

제2순환도로는 화순, 봉선동, 학동, 두암동 등 빠져 나갈 수 있는 블랙이트가 여러 곳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 무등산으로 쉽게 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웰빙, 레저 열풍으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다. 외지 방문객들이 무등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등산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정정일·광주 동구 두암동



동물들의 짧은 나이테



아메리카 들소 어미와 태어난 지 1주일도 안된 새끼가 같이 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털 색깔이 새끼가 훨씬 밝고 빨은 어미에게서만 보인다. 털 색깔이 연한 건 아직까지 솜털을 벗지 못하고, 빨이 없는 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끼도 생후 두 달 정도면 털갈이를 시작하고 빨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생후 1년 정도 되면 제법 그럴듯한 빨을 가지게 된다.

빨도 피부 각질의 일종이라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자라나면서 소위 '나이테'라는 것을 가지게 되며, 이 무늬는 때론 나이를 판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동물들 나이를 판별하는 것은 이 빨의 모양과 이갈이 정도를 보아 대충 짐

작할 수 있을 뿐, 출생기록이 없다면 정확한 나이 추정은 어렵다. 이나 빨은 나이뿐 아니라 질병과 영양상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빨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젖소들원래 빨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 젖소들에게선 거의 빨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사육관리를 위해 빨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생후 15일 정도에 조금씩 돌아다니는 빨의 뿌리 부분에 제각 연고를 발라 화학적으로 태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약간의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송아지들은 금방 잊고 다시 활기차게 뛰어다닌다. 그리고 빨은 평생 자라지 않는다.

◇최충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은행들 '연체 통보' 만기일 전에 알려줬으면

개인사업 하나보다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아 1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 마이너스 통장의 만기일이 지난 2월 초라 연장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빠 까맣게 잊어버렸다.

만기일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여제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해 오늘부터 연체이자 붙는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까운 지점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얼핏 들으니 잊어먹고 있던 필자에게 연체 사실을 알려줘 고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체료를 벌기 위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고 괴씩하게 느껴졌다.

마이너스 통장 사용한 지 5년이나 되고 그동안 한번도 연체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기왕 연장 신청 사실을 알려주려거든 연체료가 부과되기 전에 통보해주지 하필 연체 뒤에 알려준 건지... 물론 연장 기한을 잊어버린 필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요즘 같이 유·무선 통신이 발달된 사회에서 연체 이후에 알려줘야 하는 지 생각할 수록 괴씩했다. 은행이 고객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 하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정하·나주시 대기동

無等鼓

나라 안이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는 사이, 나라 밖 국제시장에서도 원유며, 곡물이며, 투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단순한 장치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수요는 없이 사서 파는 과정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어내는 원초적 행위다.

그러나 반드시 자본이 투입돼야 하고 그 총량이 많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래서 돈 없는 서민들이 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새정부 장관자리에서 낙마한 일부 인사들은 투기와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불렸는데 비난을 받았다. '그냥 하나 샀는데 돈이 불어' 정말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부러움과 찬사를 받으려면 투기꾼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사람이 명에까지 덧칠 거머쥐려는 탐욕, 국민들은 앞으로도 그 꼴은 못 본다.

어jection 것이었다. 미래를 보는 안목에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원래 투기꾼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부 장관자리에서 낙마한 일부 인사들은 투기와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불렸는데 비난을 받았다. '그냥 하나 샀는데 돈이 불어' 정말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부러움과 찬사를 받으려면 투기꾼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사람이 명에까지 덧칠 거머쥐려는 탐욕, 국민들은 앞으로도 그 꼴은 못 본다.

투기와 탐욕



가이쳐려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선견지명, 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 하려는 중국과 인도의 원유수요 급증을

기현호 경제부처 khh@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광고매케팅부	2200-521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